



한진, 준법경영 성과 인정… 컴플라이언스 대상

한진이 제 6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했다. 11일 한진에 따르면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는 국내 준법 경영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왼쪽 두번째부터)한진 강수호 준법지원실장,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 이사장, 한진 최종석 정책기획담당 부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한국전력, 눈 건강 증진 공로 복지부 장관상 수상

한국전력이 지난 8일 '제56회 세계보건기구(WHO) 눈의 날' 기념식에서 눈 건강 증진과 실명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눈 건강 증진과 실명 예방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사진은 세계보건기구(WHO) 눈의 날 행사 모습. /한진



풀무원재단, 경남 교사 대상 공감교육 연수 진행

풀무원재단이 경남 지역 교원들의 공감교육 지도 역량 강화에 나섰다. 통영RCE세자트라숲과 협력해 공감과 존중, 협력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열린 공감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 행사는 유치원, 초·중·고 교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풀무원재단



JW중외제약, 임산부 철 결핍 조기 진단 캠페인

JW중외제약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철 결핍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여성 질환 치료 저변을 확대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8일 사내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신 중 발생하기 쉬운 철결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빈혈로 악화하기 전 초기 단계부터 올바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JW중외제약



CJ대한통운, 브랜드 캐릭터 '오네 프렌즈' 공개

CJ대한통운이 배송 브랜드 '오네(O-NE)'를 대표하는 신규 캐릭터 '오네 프렌즈'를 공개하며 고객과 소통을 확대한다. 1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오네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한 브랜드 캐릭터 '오네 프렌즈'를 자사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선보였다. /CJ대한통운

롯데, 장애인·비장애인 8000명 한마음으로 달렸다

제11회 슈퍼블루마라톤 성료 장애인 향한 바른 언어 사용 독려

롯데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함께 9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 일대에서 '제11회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다.

'슈퍼블루마라톤'은 장애인의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파란색 운동화 끈을 묶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행사로, 2015년 처음 시작해 올해까지 약 9만 명이 참가했다.

올해 슈퍼블루마라톤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80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달리며 장애인 인식 개선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가자들은 기록과 순위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며 같은 공간을 함께 달렸다.

롯데는 이번 행사가 한글날에 열린 점을 고려해 캠페인 주제를 '한글날,



롯데가 9일 서울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제11회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8천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손을 잡고 달리며 장애인 인식 개선의 의미를 되새겼다. /롯데지주

장애인에게 아름다운 말을 전하세요'로 정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기존 완주 메달에 영문의 의미를 되새겼다.

작했다. 롯데 계열사들도 행사에 참여했다. 롯데월드의 캐릭터인 로티와 로리는 대회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응원했고, 롯데월드푸드·롯데칠성음료·코리아

서울교육 70년 역사·미래 한자리에

서울시교육청 개청 70주년 용산구청사서 '기록 주간'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개청 70주년을 맞아 서울교육의 변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기록 주간을 운영한다. 근대 학교의 역사를 다룬 전시부터 미래 교육 공간을 논의하는 포럼, 기록관리 특강까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교육 관련 기록을 소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서울교육 기록 주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발족한

195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청 70주년을 맞았다.

특별전 '꿈을 키운 서울 근대 학교 140년의 이야기'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사 1층 중앙 로비 홀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13일 오전 10시 30분이다.

전시는 근대 학교의 등장부터 광복과 전쟁 시기의 교육, 교실 환경과 교육 기회의 변화, 교육자치와 디지털 교육까지 6개 주제로 구성했다. 옛 교과서를 활용해 당시 학교와 학생의 모습을 살펴보는 실물 전시도 마련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동아제약, 44년간 女 문학인 꿈 키웠다

국내 최장수 여성 백일장 지원

동아제약이 1983년부터 44년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최장수 여성 백일장'을 지원하며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7일 서울 종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44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수석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

부가 후원한다. 여성 문학인 발굴 등에 중점을 뒀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사춘기', '강아지', '흔적', '산책'이 글제로 제시됐고 현장 참가자들은 창작에 대한 열정과 글솜씨를 펼쳤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시, 산문, 아동문학 부문에서 총 2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문별 장원에는 백지안 씨(시), 임은하 씨(산문), 장태희 씨(아동문학)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은 향후 작품집으로 발간되고 문학광장 누리집과 브런치스토리를 통해 공개된다.

/이청하 기자

한국벤처투자·KOSA, AI기업 성장 지원

업무 협약 맺고 글로벌 진출 지원

한국벤처투자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손잡고 유망 AI·SW 투자지원 생태계 확대 등에 나선다.

한국벤처투자는 KOSA와 유망 AI·SW 기업의 성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 펀드 AI·SaaS 및 글로벌 자펀드 투자 네트워크와 국산 AI 기술의 공공 실증 경험을 KOSA의 기술·산업 네트워크와 연결해 유망 AI·SW 기업의 발굴 및 투자유치와 기술 실증·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유망 AI·SW 투자지원 생태계 확대 ▲AI·SW 기술·시장 수요와 투자를 연결하는 정보 교류 파이프라인 구축 ▲AX 및 AI 기술 실증 사례 확산을 위한 연계 ▲AI·SW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나선다.

세븐은 간식을 제공했다.

롯데 관계자는 "슈퍼블루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발달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2014년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BLUE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BLUE 캠페인은 장애인에 대한 바른 언어 사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으로, 'Beautiful Language Use will Echo(아름다운 말은 울림이 됩니다)'의 약어다. 슈퍼블루마라톤은 매년 가을 진행되는 캠페인의 대표 행사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한국벤처투자 이대희 대표(왼쪽)가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협회 조준희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협약을 통해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네트워크와 KOSA의 기술·산업 네트워크를 연결해 유망 AI·SW 기업의 투자와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 시장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AI·SW 기업의 성장 기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콜마비엔에이치, 계룡산 생태계 복원

토종 자생식물 총 1400주 식재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제조개발 생산(ODM) 기업 콜마비엔에이치가 생물 다양성 보전, 생태계 회복 등에 중점을 두며 친환경 경영을 계속한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7일 계룡산 국립공원 밑목재 생태통로 일원에서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 방제 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등 국내 생태계 균형을 저해하는 교란 식물의 확산을 막고 자생 식물 위주의 생물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봉사단은 교란식물 제거작업과 함께 산딸나무, 산뽕나무, 단풍나무 등 토종 자생식물 총 1400주를 식재했다. 약 3500㎡ 규모의 자생 생물 기반지를 조성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을 확



지난 7일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콜마비엔에이치 임직원들이 자생식물을 식재했다. /콜마그룹

보했다. 또 식재된 자생식물을 통해 연간 약 11톤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24년부터 자연환경 복원 및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청하 기자 mlee236@